

부산 유의어 ‘Entirely, Totally, Wholly’의 사용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정연창
(부산대학교)

Jung, Yeonchang. 2009. A Corpus-based Study on the Use of Adverb Synonyms ‘Entirely, Totally, and Wholly’. *Linguistic Research* 26(2), 31-4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use of English adverb synonyms *entirely*, *totally*, *wholly* through BNC, and examin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familiarity with the ‘adverb+adjective’ colloc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lue and importance of collocation, we need to first survey the Lexical Approach suggested by Lewis(1993, 1997, 2000). The Lexical Approach argues that language is not lexicalised grammar, but grammaticalised lexis. They view language as lexis rather than a combination of grammar and vocabulary. Native speakers’ mental lexicon is stored as prefabricated multi-word chunks, from which their conversational fluency does come, not from the use of difficult words, nor from simply the most common words of the language. Learners will not learn to speak well by practising the individual words and need input rich in prefabricated chunks. On the ground of the Lexical Approach, I analysed the use of the three adverbs through BNC. The most common adjectives with which these adverbs combine were *different* and *new*, and then *dependent*. Considerable numbers of adjectives with which adverbs *entirely* and *totally* are used appear in common in various genres, while adverb *wholly* has a strong tendency to be used only with some adjectives specific to a particular genre. On the basis of the above corpus-based study of the use of these three adverbs, the paper examined Korean high school students’ familiarity with the ‘adverb+adjective’ collocation. The subjects are a total of 60 high school students. The questions are that with a given adjective, which one of the three adverbs is most familiar to the subjects. The result was very different from the actual use of native English speakers. The rate of correct answer is less than 40%. The individual words given in the test are very common. According to the Lexical Approach, this suggests that EFL learners should learn frequently occurring fixed expressions as a whole, not by dividing them into separate words. In other words, they should acquire *entirely possible* as a whole, not *entirely* and *possible* separately.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collocation, lexical approach. corpus, adverb, adjective

* 이 논문은 200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익명의 두 분 심사자에게 좀더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지적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1. 서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의 사용이다. 유의어 단어들은 원어민들에게는 그 의미나 사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몰라도,¹⁾ 어떤 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고 혼란스럽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아주 빈번하게 접하지만 그 사용의 차이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유의어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 동사 *speak/say/tell*, *mend/repair*, *provide/supply*, *extend/expand* 등과 같은 단어들과 형용사 *large/big*, *little/small*, *strong/powerful* 등과 같은 단어들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의어라 할 수 있다. 특히, *speak/say/tell*, *large/big*, *little/small*, *strong/powerful*과 같은 단어들은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아주 기본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을 자신있게 자유자재로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EFL 학습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에는 신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물건이나에 따라 사용되는 동사가 다르다. 예를 들어, 모자나 두건은 ‘쓰다’를, 안경은 ‘끼다’를, 장갑이나 반지는 ‘끼다’를, 신발이나 양말은 ‘신다’를 사용한다. 그러나 영어에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wear*를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 학습자가 한국어 동사 ‘쓰다/끼다/신다’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가 *speak/say/tell*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며 혼란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동사 모두 영어로는 *wear*라는 하나의 동사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EFL 학습자들은 일상생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언어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서 단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어휘학습 활동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로 인하여 EFL 학습자들은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지만, 실제 담화상황에서 알고 있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어휘가 다른 어휘와 어떻게 결합하여 사용되는지에 관한 연어능력(*collocation competence*)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McCarthy 1990, Howarth 1996, Conzett 2000, Hill 2000, Lewis 1997, 2000)²⁾.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부사 *entirely*, *totally*, *wholly*의 사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단어들은 한국인에게는 발음도 다르고, 철자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단어들이지만 (원어민에게는 의미나 사용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는 이 단

1) 사실, 원어민이라든가 유의어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Hill(2000)에 의하면, *speak/say/tell*과 같은 유의어들은 그 의미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Lewis(2000)는 이 세 동사의 차이는 의미에 있다기보다는 사용되는 방법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의어들은 그 의미의 차이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

2) 연어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면, 연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자주 함께 어울려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연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논의가 될 것이다.

어들이 유의어로 인식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어휘접근법(Lexical Approach)의 이론적 관점에 의거하여 이 세 부사의 형용사 결합에 대한 특성을 원어민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이 코퍼스 분석에 기초하여 ‘부사+형용사’ 연어에 대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친숙도 실험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한국의 EFL 학습자의 연어 지식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학습자에 맞는 효과적인 언어학습 및 교수법 개발과 영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연어를 새로운 관점에 조명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어휘접근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3장에서는, 어휘접근법의 이론에 기초하여, 영어 부사 유의어 *entirely, totally, wholly*의 사용의 특성을 BNC(British National Corpus)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부사+형용사’ 연어에 대한 한국의 EFL 학습자들의 친숙도에 대해서 간단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의한다. 4장에서는 어휘접근법의 이론과 관련하여 영어 부사 유의어 *entirely, totally, wholly*에 대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2. 이론적 배경

언어에 있어서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연어(collocation)이라는 용어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연어라는 용어는 Palmer(1933)가 처음 사용하였고, Firth(1957)가 연어를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이라고 규정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정의가 있다 (Cruse 1986; McCarthy 1990; Sinclair 1991, Lewis 1993, 1997; Carter 1998; Schmitt 2000; Nation 2001 등). 이들의 여러 정의를 종합하면, 연어란 습관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제약을 지닌 단어들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어휘 중심의 교수학습론자들에 의해 연어가 재조명되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어가 어휘접근법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어휘접근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2.1 어휘접근법

어휘접근법은 Lewis(1993, 1997, 2000)가 제시한 이론으로서 언어의 본질을 어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시도이다. 그는 사람의 심리 사전(mental lexicon)이 단어로 구성된 목록보다 상당히 더 크며, 단일 단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뭉치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 이러한 뭉치말은 작은 언어 조각으로 분해되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뭉치말 전체로서 습득되어 기억에 저장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억으로부터 불러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짜여진 뭉치말(prefabricated chunks)로 심리사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단순한 통찰이 언어에 대한 어휘적 관점(lexical view of language)이며 언어 교수에 대한 어휘 접근법(lexical approach)이며, 문법보다는 언어의 어휘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어휘접근법은, 언어를 문법(구조)과 어휘(단어)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적인 견해에

도전하면서, 언어는 뭉치말(chunk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뭉치말이 결합되어 연속된 응집된 텍스트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뭉치말들을 어휘(lexis)라 부르는데, 4 종류의 기본 유형이 있다.³⁾

2.1.1 가능한 문장과 발생가능성이 높은 문장

언어에 대해서 전통생성문법과 어휘접근법이 가지는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 생성문법학자들은 가능한 문장(possible sentences)을 생성해 내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언어학 연구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어떤 문장이 가능한(즉, 문법적인) 문장이며, 어떤 문장이 불가능한(즉, 비문법적) 문장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휘접근법은 어떤 문장이 가능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장이 발생가능성이 높은 문장(probable sentences)인가에 더 관심을 가진다. 즉 어휘접근법은 가능한 문장보다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장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어휘접근법에서는 가능한 문장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어휘접근법은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actually-occurring or probable language)에 집중한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모든 가능한 영어 문장에 – 지금까지 경향이 그랬던 것처럼 – 집중하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유머, 창조성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문법으로 생각되었던 생성적 능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즉시 사용가능한 언어에 학습자의 주의를 향하게 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본다.

2.1.2 문법에 대한 어휘접근법의 입장

어휘접근법은 언어에 있어서 어휘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문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휘접근법이 단어보다는 뭉치말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창성이 거대한 양의 이미 짜여진 다단어 항목(prefabricated multi-word items)을 저장하는 습관에 기초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내는 기초로서 이용될 수 있다. 문법 지식은 새롭고 상상적인 방법으로 어휘의 창조적인 재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문법 지식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심리 사전에 학습자가 가지게 될 때까지는 문법 지식이 창조적인 역할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다.

Sinclair(1991)는 문법의 일반화는 엄격한 기반(rigid foundation)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별 단어와 구의 패턴이 축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논평에는 학습자가 그

3) 여기서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어로 ‘어휘’에 해당하는 vocabulary는 보통 한 언어, 한 개인, 또는 어떤 직업 및 계급 등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휘수/용어수 또는 어휘범위/용어범위를 가리키는 총합적이고 집단적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vocabulary는 어휘표, 단어표, 단어집 등의 의미로 쓰인다. lexis는 구조주의 언어학 용어인 lexeme(어휘소)와 유사한데, 여기서는 Lewis가 4가지 형태의 뭉치말 - 단어(word), 언어(collocation), 고정 표현(Fixed Expression), 준고정 표현(Semi-Fixed Expression) - 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Lewis의 관점에서 그 사용의 범위를 더 넓게 본다면, 사전에서 어휘항목으로 취급되는 어떤 언어적 형태의 표현이든지 모두 lexis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Lewis(2000)에서 단어를 제외한 모든 뭉치말을 통합하여 (다양한 관용성(idiomatcity)의 정도를 지닌) 언어로 총괄하여 부르려고 한다.

들 자신의 일반화를 위한 기초로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입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당연히, 이 관점은 학습자들이 올바른 문장을 생산할 때, 그 문장이 학습자들이 배운 추상적 규칙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규칙은 본질적으로 어휘로 구성된 언어 입력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등급으로 이해하고 분해한 것을 기초로 형성된 다양한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일반화(various provisional and partial generalisations)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Lewis(2000)는 어떤 의미에서 각 단어는 그 자체의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each word has its own grammar), 언어가 어휘화된 문법이 아니라, 문법화된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language consists of grammaticalised lexis, not lexicalised grammar)는 것이 바로 어휘접근법의 한결같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한다. 그리고 Williams(1998)는 심지어 어휘로부터 문법을 분리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한다.

2.1.3 언어

어휘접근법에서 중요한 언어학적 견해는 언어에 관한 것이다. 언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언어에서 빈번하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의 결합 또는 그 방법을 말한다. 언어는 개별 단어의 독특한 어휘적 특성에 의하여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high/tall building과 tall boy는 가능하나, *high boy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look at a person/problem과 gaze at a person은 가능하나, gaze at a problem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에는 단어들의 결합을 지배하는 어떤 일반성이 있는 규칙이 없으며, 언어는 개별 단어들의 특성에 의한 자의적인 결합이라 할 수 있다.⁴⁾

(1) 언어 학습의 중요성

어휘접근법에서 언어가 압도적으로 어휘적 현상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언어 학습에 있어서 어휘 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Lewis 1997, 2000; Conzett 2000; Hill 2000).

첫째, 단어는 일반적으로 홀로 사용되지 않는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는 언어의 70% 이상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고정된 형태의 뭉치말, 즉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언어능력은 언어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어휘학습에서 개별 단어를 학습하는 것보다 언어(뭉치말)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strong과 coffee를 분리해서 별도로 배우면, strong coffee라는 올바른 결합 표현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그러나, strong coffee를 하나의 뭉치말로 배우면 한번에 세 개의 표현

4) Lewis(1997)에 의하면, 대부분의 언어 표현은 자의적(arbitrary)이다. 단어 pat, pet, pit, pot, put은 영어 단어들이다. 그러나 sat, set, sit, sot는 영어 단어이나 sut는 (표준)영어 단어가 아니다. Happy Christmas, Merry Christmas, happy Birthday는 표준 영어지만, *Merry Birthday는 아니다. children나 went는 허용되지만, *childs와 *goed는 허용되지 않는다. 좀 더 큰 표현의 경우를 보면, bus stop은 허용되나 *taxi stop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I won't wait와 I'll wait도 고정 표현으로 수용된다. 그러나 I won't bother은 고정 표현으로 수용되나 *I'll bother은 고정 표현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strong, coffee, strong coffee를 배울 수 있으므로 개별 단어를 따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셋째, 2000개의 개별 단어를 알고 있는 학습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기능할 뿐이지만, 2000개의 개별 단어에 대한 언어적 능력을 갖춘 학습자는 훨씬 더 뛰어난 의사소통능력을 갖게 된다. 2,000개의 단어와 그 단어 각각에 6개의 언어를 알고 있는 학습자는 12,000 표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넷째, 언어는 더 빠르게 생각하게 하고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게 한다. 원어민 화자는 심리사전(mental lexicon)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이미 짜여진 언어를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원어민들은 언어를 단어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어 단위, 즉 언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화자의 속도에 맞추어 듣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언어는 복잡한 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쉬운 단어로 구성된 언어로 복잡한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He has a permanent disability라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His disability will continue until he dies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여섯째, 개별 단어가 아니라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의 잘못된 결합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strong coffee는 사용되나 *strong car는 사용되지 않으며, powerful car는 사용되나, powerful coffee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뭉치말로 학습함으로써 가능한 결합과 가능하지 않은 결합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 잘못된 언어가 학습자들이 범하기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이다.

(2) 언어 지도

어휘접근법은 과거의 언어교수가 학습을 쉽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으로, 언어를 너무 작은 조각으로 분해했다고 비판한다. 언어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뭉치말을 너무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지 말고, 뭉치말 전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Lewis 1993, 1997, 2000). 언어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즉, 교사가 언어의 다른 여러 측면(발음, 억양, 강세, 문법)이 언어습득에 중요한 것처럼 언어도 그만큼 언어습득에 중요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언어의 다른 요소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언어지도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Channell 1994, Lewis 2000, Conzett 2000, Hill 2000 등).

첫째, 개별 단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일상적인 언어를 접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개별 단어를 가르친 것처럼 문맥에서 언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별 가치가 없다. 어떤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른다면 그 단어를 진정으

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단어를 가르칠 때, 그 단어의 일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연어를 동시에 가르쳐라. 만약 단어가 belief라면, strong beliefs, have a belief, belief in God/the power of medicine/yourself를 가르쳐라.

둘째, 연어지도에 있어서 교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연어가 언어학습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단어보다 더 큰 단위를 생각하도록 하여, 둘 또는 세 단어 표현을 항상 찾도록 항상 장려해야 한다. 일상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결합어(collocates)를 찾도록 하는 것은 인식향상(awareness-raising)을 위한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단어를 가르침으로써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학생들의 언어적 능력(collocational competence)을 확대하라. 2,000 단어의 어휘를 알고 있는 학생은 상당히 제한된 방법으로만 기능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동일하게 2,000 단어의 어휘를 알고 있지만, 그 단어들에 대해 언어적 능력을 갖춘 학생은 훨씬 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이다. 원어민 화자들은 언어적으로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알고 있는 제한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완벽할 정도로 잘 의사소통한다.

넷째, 체계적으로 구성된 어휘 공책은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다. 어떤 항목을 어느 곳에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적고, 그리고 다른 유사한 항목과 함께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하는 모든 것은 언어를 끊임없이 반복 경험하는 학습 과정의 일부분이다.

다섯째, 무엇을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언어를 가르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수업에 나타나는 모든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라. 학생들의 주의를 중요한 연어에 집중시키고, 다른 연어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고 기록하도록 하라.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어는 중간 연어(medium-strength collocations)이다. 이 중간 연어가 우리가 말하고 쓰고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단어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겪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중간 연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모든 개별 단어를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과잉 단순화이다. 모든 단어들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학습자의 심리사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학습자들은 새로운 단어를 습득할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 익숙한 단어로 이루어진 많은 유용한 결합을 광범위한 독서를 통하여 습득함으로써 사전의 어구 요소(phrasal element)를 확장할 필요도 있다.

단어들은 사용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언어교수에서 다르게 다루어져야한다(Lewis 2000). 예를 들면, Telescope와 같은 단어는 일단 학습자가 번역에 의하여 이 단어를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Car와 같은 보통 명사는 일반 형용사와 동사 결합어(powerful, second-hand, family, hire, start/*begin, The car broke down)와 함께 소개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speak와 같은 단어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동사 집단(say, speak, tell)의 하나이다. 이 단어들의 차이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방법에 있기 때문이다. 이 단어들은 몇몇 전형적인 언어와 집단들을 비교 대조하여 보여주는 실제 예시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책략을 사용해야 한다.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아는 개별 단어의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이 개별 단어들은 적은 수의 결합어와 함께 가장 잘 학습된다. 예를 들어, holiday를 교수할 때는 go on holiday라는 언어를 제시하여 go on holiday 전체를 학습함으로써 단어 holiday가 학습되도록 해야 한다. 중급 학생들은 더 많은 결합어를 지닌 더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언어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중급 이상의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폭넓게 읽을 필요가 있으며, 학생이 어떤 항목들을 배우게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자율적인 학습자들로서 고급 학생들은 항상 초급 학생 때 배웠던 단어들의 결합어에 새로운 결합어를 첨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휘공부를 더 어려운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어휘학습 태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단어를 불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따라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적이게 만든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어휘공부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미 부분적으로 익숙한 단어들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능숙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부사 유의어 사용에 대한 BNC 분석 및 친숙도 조사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어휘접근법의 언어에 대한 어휘적 관점과 언어의 중요성 및 언어지도 이론에 의거하여, entirely, totally, wholly 세 부사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언어를 이루는데 있어서의 특성을 BNC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 BNC 분석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부사+형용사' 언어에 대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친숙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3.1 부사 빈도수 분석

세 부사 entirely, totally, wholly의 사용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BNC를 BYU-BNC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 부사들의 BNC 총 빈도수는 entirely와 totally가 각각 6740과 5693으로서 서로 비슷하고, wholly는 2215로서 entirely와 totally의 1/3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 부사들의 장르별 분포를 알아보았는데, 각 부사의 장르별 빈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entirely의 장르별 분포

장르	구어	소설	신문	학술	기타
빈도수/100만 단어	41.7	62.5	41.6	99.9	75.4
크기(단위:100만 단어)	10.0	15.9	10.5	15.3	44.6
총 빈도수	415	994	435	1532	3363

<표 2> totally의 장르별 분포

장르	구어	소설	신문	학술	기타
빈도수/100만 단어	80.5	59.1	58.4	44.1	59.7
크기(단위: 100만 단어)	10.0	15.9	10.5	15.3	44.6
총 빈도수	802	940	611	676	2664

<표 3> wholly의 장르별 분포

장르	구어	소설	신문	학술	기타
빈도수/100만 단어	5.4	12.3	13.5	44.9	25.5
크기(단위:100만 단어)	10.0	15.9	10.5	15.3	44.6
총 빈도수	54	195	141	689	1136

위의 <표 1,2,3>에 나타난 부사들의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 단어 당 발생 빈도율이 entirely는 학술(99.9)과 소설(62.5)이 높았고, totally는 구어(80.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설(59.1)과 신문(58.4)이 비슷하였으며, wholly는 학술(44.9)이 다른 장르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3개 부사의 장르별 분포의 비교에서, entirely와 wholly는 학술 영역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totally는 구어에서 사용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 ‘부사+형용사’ 연어에 대한 BNC 분석

다음에서 세 부사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연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 세 부사들이 결합하는 형용사들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빈도수 상위 100개의 형용사를 조사하고, 그것을 어떤 형용사가 각 부사와 결합하는지 빈도수 순위로 정렬하였다. 그리고 세 부사와 자주 결합하는 형용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부사의 결합 빈도수 순위 10위까지의 형용사를 조사하였다. 다음 <표 4>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각 부사가 자주 결합하는 형용사 목록이다.

<표 4> 결합 빈도수 상위 10위까지의 형용사⁵⁾

	entirely		totally		wholly	
순 위	빈도 수	결합 형용사 (계: 13)	빈도 수	결합 형용사 (계; 11)	빈도 수	결합 형용사 (계: 15)
1	259	new, different (2)	397	different (1)	42	different (1)
2	76	clear (1)	92	new (1)	34	inadequate (1)
3	53	sure (1)	74	dependent (1)	31	dependent (1)
4	47	free (1)	70	wrong (1)	30	new (1)
5	44	appropriate (1)	61	unacceptable (1)	25	independent (1)
6	43	happy (1)	59	inadequate (1)	23	inappropriate, satisfactory (2)
7	40	dependent (1)	46	unexpected (1)	17	unacceptable (1)
8	39	consistent, satisfactory, wrong (3)	36	unsuitable (1)	12	wrong, unreasonable, unexpected, free (4)
9	35	possible (1)	33	unaware (1)	11	consistent, responsible (2)
10	34	absent (1)	32	independent, unnecessary (2)	10	appropriate (1)

위의 <표 4>에서 보듯이, entirely와 자주 함께 나타나는 형용사는 new, different, clear, sure, free, appropriate 등이 있고, totally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형용사는 different, new, dependent, wrong, unacceptable 등이 있으며, wholly의 경우는 different, inadequate, dependent, new, independent 등이 있다. 그리고 세 부사 모두가 함께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로서 different, new, dependent의 3개가 있는데, different와 new는 entirely(259/259)와 totally(397/92)의 빈도수가 wholly(42/3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dependent의 경우는 totally(74)가 높고, entirely(40)와 wholly(31)가 비슷하다. 아마도, entirely different/new와 totally different/new가 아주 빈도수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EFL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며, entirely와 totally가 공통점이 많으며 유사하다고 느끼는 반면, wholly different/new는 entirely와 totally에 비해서 빈도수가 아주 낮으므로 생소하게 느끼는 것 같다.⁶⁾⁷⁾

5) <표 4>의 ()의 숫자는 해당 빈도수에 부사와 결합하는 형용사의 수를 나타낸다.

6) 여러 명의 한국 학습자(대학생, 대학원생 등)들이 entirely와 totally는 친숙하고, 서로 유사하게 느껴지나, wholly는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 위의 BNC의 자료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의 세 부사의 사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1,2,3학년 영어 교과서(총 28권)를 AntConc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세 부사의 사용은 모두 13회(entirely 6회, totally 6회, wholly 1회)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형용사와 함께 사용된 것은 3회뿐이었는데, totally가 different, new와 함께 두 번 나타나고, wholly가 dependent와 1회 나타났으며, entirely가 형용사

3.3 구어에서의 부사 빈도수

최근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흐름에 따라, 구어에서 세 부사가 어떤 형용사와 빈번하게 결합하여 사용되는지 장르 전체의 결합 형용사와 비교해 보았다. 각 부사의 장르 전체 결합 형용사 상위 20개와 구어 결합 형용사 상위 10개를 비교해 보았다.

<표 5> entirely, totally, wholly의 장르 전체 결합 형용사와 발화 결합 형용사⁸⁾

entirely		totally		wholly	
전체	구어	전체	구어	전체	구어
new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wrong
different	wrong	new	wrong	inadequate	<u>artificial(56/4)</u>
clear	new	dependent	opposed	dependent	appropriate
sure	sure	wrong	unnecessary	new	unreasonable
free	clear	unacceptable	<u>honest(21/21)</u>	independent	<u>unformulated*</u>
appropriate	happy	inadequate	new	inappropriate	<u>surprising(49/5)</u>
happy	consistent	unexpected	separate	satisfactory	<u>spacious*</u>
dependent	separate	unsuitable	dependent	unacceptable	<u>scientific(60/3)</u>
consistent	<u>sensible(98/5)</u>	unaware	convinced	free	satisfactory
satisfactory	right	independent		unexpected	right
wrong		unnecessary		unreasonable	
possible		opposed		wrong	
absent		blind		consistent	
independent		free		responsible	
right		irrelevant		appropriate	
separate		unknown		attributable	
true		alien		admirable	
successful		false		unjustifiable	
natural		convinced		good	

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다음은 totally와 wholly가 형용사와 함께 나타나는 예문이다.

- the girl became a **totally different** person. (중앙 1학년)
- Nano-technology may open a **totally new** horizon in this matter. (지학사 3학년)
- English for such a function will no longer be **wholly dependent** on "native speaker." (지학사 2학년)

이 세 부사와 형용사 결합에 대하여 BNC의 분석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분석을 비교해 보면, 우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부사+형용사’ 결합 표현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어민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사+형용사’ 표현들이 학습 교재에 충분히 반영되어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할 때에 반드시 원어민 코퍼스를 참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8) <표 5>의 x/y에서 x는 상위 100개 형용사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키는 번호이고, y는 빈도수이다. 그리고 별표(*)는 해당 형용사가 100개 형용사 내에 포함되지 않음을 나타냄.

responsible		devoid		successful	
-------------	--	--------	--	------------	--

위의 <표 5>에서 보듯이, entirely와 totally는 각각 sensible(entirely와 결합: 상위 98위, 빈도수 5회)과 honest(totally와 결합: 상위 21위, 빈도수 21회)를 제외하고는 구어(상위 10개까지)에서 결합하는 형용사가 장르 전체(상위 20위까지)에서 결합하는 형용사에 모두 나타난다. 반면, wholly는 entirely와 totally와는 사뭇 다르다. 구어(상위 10개까지)에서 결합하는 형용사 중 5개(50%)가 장르 전체(상위 20개까지)에서 결합하는 형용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장르 전체 상위 20개까지에서 결합하는 형용사에 포함되지 않는 wholly의 결합 형용사에서 3개는 artificial(wholly와 결합: 상위 56위, 빈도수 4회), surprising(wholly와 결합: 상위 49위, 빈도수 5회), scientific(wholly와 결합: 상위 90위, 빈도수 3회)이고, 2개는 unformulated와 spacious인데 장르 전체에서 wholly와 결합하는 100개 형용사 내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부사 entirely와 totally는 구어(상위 10개까지)에서 결합하는 형용사가 장르 전체(상위 20개까지)에서 결합하는 형용사와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wholly는 구어에서 결합하는 형용사의 50%만 장르 전체에서 결합하는 형용사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형용사 결합에 있어서, wholly가 장르에 있어서 entirely나 totally와 특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용사 wholly의 이런 결과는 장르별 분포에서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표 3>에서 보듯이, wholly는 구어에서의 발생 빈도율이 다른 장르에 비해 가장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르의 부사 발생 빈도율과 결합 형용사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wholly가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보이는 학술 영역의 결합 형용사를 찾아 보았다.

<표 6> 학술 영역에서 wholly와 결합하는 형용사

wholly			
전체		학술	
different	unreasonable	different	unexpected
inadequate	wrong,	new	<u>unnecessary(36/7)</u>
dependent	consistent	dependent	unreasonable
new,	responsible	satisfactory	consistent
independent	appropriate	inappropriate	<u>adequate(21/7)</u>
inappropriate	attributable	independent	attributable
satisfactory	admirable	<u>clear(23/7)</u>	<u>exceptional(41/5)</u>
unacceptable	unjustifiable	<u>ineffective(44/5)</u>	inadequate
free,	good,	<u>political*</u>	<u>negative(36/6)</u>
unexpected	successful	responsible	<u>positive(62/4)</u>
		---<상위10개>---	

* x/y에서 x는 상위 100개 형용사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키는 번호이고, y는 빈도수이다. 그리고 별표(*)는 해당 형용사가 100개 형용사 내에 포함되지 않음을 나타냄.

위의 <표 6>에서 보듯이, 학술 상위 10개까지의 결합 형용사 중에서 3개가 장르 전체 상위 20개까지의 결합 형용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히 *political*은 전체 100개 결합 형용사 내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학술 상위 20개까지의 결합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도, 학술 영역의 8개의 형용사가 전체 상위 20개 형용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wholly*가 구어나 학술의 결합 형용사가 전체 결합 형용사에 포함되지 않은 어휘 수가 *entirely*와 *totally*에 비해서 많은 것은 장르의 발생 빈도율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entirely*와 *totally*는 여러 장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용사와 어느 정도 빈번하게 결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wholly*는 특정 장르에 국한된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끝으로, BNC 전체에서 *entirely*, *totally*, *wholly*중 어느 하나와 배타적으로 결합하는 형용사를 찾아보았는데, 그런 형용사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음 <표 7>을 보자.

<표 7> 하나의 부사와 배타적으로 결합하는 형용사

entirely(빈도수)	totally(빈도수)	wholly(빈도수)
optional(7), proper(9) blameless(8), feasible(6)	deaf(14), unique(11)*, symmetric(15), helpless(8)	insufficient(6), exceptional(5)*

* *unique*는 *wholly*와 1회 나타나고, *exceptional*은 *entirely*와 1회 나타남

위의 <표 7>에서 보듯이, 어느 하나의 부사와 배타적으로 결합하는 형용사가 그렇게 어려운 형용사는 아니며, 결합 빈도수가 모두 5회 이상으로서 빈도수가 높은 것도 아니지만, 결코 낮다고 할 수도 없는 빈도수이다.

3.4 ‘부사 유의어+형용사 연어’에 대한 친숙도 조사

부산에 위치하는 K 고등학교 학생 60명(심화반 30명과 보통반 30명)을 대상으로 ‘*entirely/totally/wholly*+형용사 연어’에 대한 친숙도를 조사하는 간단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지는 총 10 문항(*entirely* 4문항, *totally* 4문항, *wholly* 2문항)으로, 주어진 형용사와 가장 친숙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사를 *entirely*, *totally*, *wholly*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은 주어진 형용사와 가장 친숙한 부사를 선택하는 질문의 응답 결과다.

<표 8> 형용사별 친숙한 부사 선택에 대한 응답 결과⁹⁾

9) *wholly*의 문항은 2개뿐인데, *wholly*의 총빈도수가 *entirely*와 *totally*에 비해서 1/3 정도이고, 결합 빈도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형용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능한 형용사 중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형용사 2개를 선택하는 것이 비율상 적당하다고 보았다.

BNC에서 해당 형용사와 결합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사	문항	BNC에 나타난 해당 형용사에 대한 부사와 빈도수	entirely를 선택한 수	totally를 선택한 수	wholly를 선택한 수	계
entirely	a	E(35)/T(0)/W(1)	13/13	7/5	10/12	30/30
	b	E(76)/T(6)/W(7)	16/12	6/11	8/7	30/30
	c	E(33)/T(3)/W(4)	13/13	10/9	7/8	30/30
	d	E(53)/T(7)/W(3)	15/15	8/10	7/5	30/30
totally	e	E(2)/T(29)/W(0)	20/14	5/9	5/7	30/30
	f	E(6)/T(36)/W(7)	6/9	16/13	7/13	30/30
	g	E(0)/T(8)/W(0)	11/12	9/9	10/9	30/30
	h	E(4)/T(61)/W(17)	9/11	11/8	10/11	30/30
wholly	i	E(0)/T(0)/W(6)	9/10	10/12	9/8	30/30
	j	E(1)/T(0)/W(5)	10/12	7/10	13/8	30/30

* E는 entirely를, T는 totally를, W는 wholly를 나타낸다. 그리고 x/y에서 x는 심화반, y는 보통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음은 세 부사의 관련 문항들이다.

- a. What John says is (entirely) possible.
- b. It's not (entirely) clear to me.
- c. I think our policy is (entirely) right.
- d. I'm not (entirely) sure.
- e. He's lucky not to be (totally) blind.
- f. The buildings are (totally) unsuitable by today's standards.
- g. I just felt (totally) helpless.
- h. This sort of behaviour is (totally) unacceptable.
- i. It was (wholly) insufficient to compensate for it.
- j. There were factors making the case (wholly) exceptional.

위의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BNC와 일치하는 부사를 선택한 전체 평균 비율이 40%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심화반과 보통반 간의 의미 있는 차이도 없었다. 그리고 문항(a,b,c,d)는 BNC에서 entirely의 빈도수가 가장 높다. 이 문항들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응답 결과는 entirely가 totally나 wholly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entirely를 선택한 비율이 모든 문항에서 50% 이하이다. 이 결과로부터, 피실험자들이 entirely를 다른 부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수를 보인 것은 BNC의 분석과 일치하나, entirely에 대한 선택의 평균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entirely와 possible/clear/right/sure의 결

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으며, 실제 원어민들의 사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문항 (e,f,g,h)에서 BNC의 최고 빈도수를 보이는 부사는 *totally*인데, *totally*를 선택한 비율이 40%가 되지 않았다. 이 문항들의 응답 결과는 *entirely* 문항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문항 (f)에서는 *totally*가 가장 높은 응답수를 보였으나, 문항 (e)와 (g)에서는 *entirely*가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였고, 문항 (h)에서는 세 부사가 비슷한 응답수를 보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응답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다. 특히, 문항 (e)에서 피실험자들이 *blind*에 대하여 *entirely*(빈도수 2)는 심화반에서 거의 70%의 응답 비율을 보인 반면, *totally*(빈도수 29)는 응답 비율이 17%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항 (g)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EFL 학습자로서 *totally blind*와 *totally helpless*라는 연어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한편으로는 *entirely*에 대한 노출이 다른 부사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 (i,j)을 살펴보자. 이 문항들은 *wholly*가 BNC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사인데, *wholly*를 선택한 비율이 40%가 되지 않았다. 그 응답 결과는 세 부사 모두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세 부사 모두가 *insufficient*이나 *exceptional*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거의 접하지 못한 결과의 반응이라 생각된다. 특히, *wholly* 자체의 빈도수가 *entirely*와 *totally*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함께 결합하는 형용사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위의 결과가 어휘접근법의 관점에서 교육학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부사 *entirely*, *totally*, *wholly*나 형용사 *clear*, *blind*, *right*, *unacceptable*, *exceptional*과 같은 단어들은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잘 아는 단어로서 결코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만, 이 부사들이 함께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와 결합되어 형성된 ‘부사+형용사’ 뭉치말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어휘 접근법에 의하면, 자연발생적으로 텍스트에 나타나는 뭉치말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순간 그 뭉치말의 습득은 어려워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주의를 뭉치말 전체에 주목되지 못하고 개별 단어에 주목되기 때문에, 뭉치말 전체가 기억에 저장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분해된 개별 단어들이 분리되어 따로 기억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단어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개별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원어민의 유창성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흔히 접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로 구성된 뭉치말을 많이 알고 있는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어휘 접근법에 의하면, *entirely*가 하나의 언어 단위이면, 마찬가지로 *entirely possible*도 똑같은 하나의 언어 단위이다. 이 두 표현은 단지 하나는 소리가 좀더 짧고, 다른 하나는 소리가 좀더 길 뿐이다. 원어민들의 머리 속에는 두 표현이 똑같은 상태로 기억에 저장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면 언제든 불러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EFL 학습자는 대화나 텍스트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정된 뭉치말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반복해서 접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뭉치말 전체가 학습자의 기억에 저장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어휘접근법은 원어민의 머리 속에는 – 즉, 언어지식은 –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라는 뭉치말로 가득 차 있으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불러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원어민은 이것을 기초로 유창하게 말하며 능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 본질의 핵심은 언어에 있다고 본다. 어휘접근법에서 제시하는 언어지도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습자에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언어를 발굴하여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인식하게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휘접근법의 이론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entirely*, *totally*, *wholly* 세 부사의 사용의 특성을 BNC를 통해 분석해 보고, 이 세 부사의 형용사 결합 언어에 대한 한국고등학생들의 친숙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세 부사 모두가 *different*, *new*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편이지만, *entirely*와 *totally*는 *different*, *new*와 아주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반면, *wholly*의 결합 정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entirely*와 *totally*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여러 장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wholly*는 장르에 따라 특정한 형용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BNC에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세 부사에 대한 ‘부사+형용사’ 언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친숙도에 관한 실험의 결과는 실제 원어민의 사용과 일치하는 비율이 평균 40% 미만이었다. 실험지의 문항에 사용된 부사와 형용사는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쉬운 단어였지만, ‘부사+형용사’ 언어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아주 낮았다.

실험 결과에 대한 어휘접근법의 교육학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ntirely*, *totally*, *wholly* 세 부사의 형용사 결합에 관한 실험에서 보듯이, 세 부사와 그 결합하는 형용사가 모두 쉬운 기본 단어들로서 피실험자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부사+형용사’ 언어에 대한 결과는 열악하였다. 이런 결과는 교사들이 EFL 학습자들에게 개별 단어가 아니라, 개별 단어가 결합된 언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어휘접근법에 의하면, 언어를 인위적으로 분해하여 왜곡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대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기억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Cater, R. 1998. *Vocabulary*. London: Allen and Unwin.
 Channell, J. 1994. *Vague Language* OUP.
 Conzett, J. 2000. Integrating Collocation into a reading & Writing Course. In Lewis, M.(Ed.), *Teaching Collocation*.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pp. 70-87.

- Cruse, D.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rth, J. 1957. A Synopsis of Linguistic Theory 1930-1955. In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Special Volume. Oxford: Blackwell. pp. 1-32.
- Hill, J. 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ia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Lewis, M.(Ed.), *Teaching Collocation*.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pp. 47-69.
- Howarth, P. 1996. Phraseology in English Academic Writing: Some Implications for Language Learning and Dictionary Making. *Lexicographica Series Major* 75. Tübingen: Niemeyer.
-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the Way Forward*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 2000.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McCarthy, M. 1990. *Vocabulary*. Oxford University Press.
- Nation, I.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H. 1933. *Second Interim Report on English Collocation*. Tokyo: Kaitakusha.
- Schmitt, N. 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A. 1998. Negotiating in Chunks. In *Arena*, Issue 19.

정연창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화번호: 051-510-2610

전자우편: jungyc@pusan.ac.kr

접수일자: 2009. 07. 15

수정일자: 2009. 08. 13

게재일자: 2009. 08. 24